하늘과 땅의 조화로운 時代史的인 소용돌이 속에서 또 하나의 아름다움을 찾아봄이 어떠할까?

우리 다 함께 옛 조상들이 남기고 간 민족의 뿌리와 우리가 살고 있는 山과 들녘속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押海島의 한 나라를 찾아봄도 할 것이다.

향토 문화

佛 教 文 化

編 輯 者

◆ 都草 萬年寺

화도 부두에서 도보로 한 시간.

김해 김씨 문중산을 돌아 용당산(龍塘山)을 바라보고 맑은 물 곱게 흐르는 실개천을 따라 골짜기에 들어서면 가슴 열리는 깨끗한 공기가 어느덧 사바세계를 벗어난 것 같다.

'뒷까끔'산과 '되내기'로 넘는 고갯길이 실뱀처럼 구부러져 있는 곳이다.

선산, 뒷산, 용당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어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형국으로 보인다.

만년사는 용당산 중허리에 아담하게 자리잡고 있다.

1948년 문귀녀(文貴女) 여사가 서른 아홉 되던 해에 그의 지극한 불심과 신도들의 협조로 지어진 절이 현재의 만년사이다.

노만사와 함께 조계종에 속한 민년사는 대지 400평에 건평 45평(7동)이다.

1962년 10월 29일 문공부에 등록을 필하였으며, 현재의 신도 수는 160 여명에 달한다.

이 절이 들어서기 전의 일이다.

길을 지나던 한 노인이 이르기를 "산세로 보아서 이 터에 절을 지으면 만년 동안 번영할 수 있고, 큰 가뭄에도 물이 마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후 노인의 예언에 따라 그곳에 절을 짓고 이름을 만년사라 명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때는 수 백년 전의 일이고. 그 동안 초막 절을 지어 유지하다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들어낸 것이 1948년의 일인 것이다.

성불화 황귀진(成佛華 黃貴珍), 일심화(一心華) 박납진(朴納珍)씨들의 불심과 현재 만년사에 혼신을 다하여 불심을 키워 가는 극락화 문귀녀(極樂華 文貴女) 여사의 정어린 곳이기도 하다.

지나는 걸인에게 밥 한술을 먹여 보내야만 마음이 놓이던 문 여사는 우이도가 고향이며, 문순득(文淳得-漂海錄의 著者)의 후예이다.

달관(達觀)의 세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부처의 자비심을 설법할 만한 능력은 없어도 묵묵히 부처의 길을 가는 문 여사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법도를 실천하는 보살임에 틀림없다.

만년사 주지 스님은, 〈부처님의 가름 침대로 사는 것만이 중생이 구원받는 길이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이치를 깨달음은 욕(慾)을 버린 경지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합장을 해 보인다.

최근에 흙 속에서 혜각 스님이 파냈다는 신기한 목불은 좌상 득도의 혜안으로 근처 야산에 모셔져 있다.

산사에는 산새들이 있어 노래하고 골짜기 실개천에서는 맑고 고운 물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는 곳이다.

◆ 都草 萬德寺

도초면 외남리에 위치하며, 1952년에 설립된 조계종파로 종단에 가입된 사찰이다.

신도 수는 약 200 여명이며, 대지 60 여평에 법당 1동이 있다